

---

# 2021년 제23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6. 4. ~ 6. 1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6. 4.	시청률	0.043

### 【총 평】

국민리포트는 환경을 소재로 한 아이템이 집중 배치돼 환경의 중요성과 실천을 부각시킨 점이 돋보였다. 환경 지키는 '플라스틱 안 쓰기' 참여 확산, '비닐봉지 NO' 친환경 선언 망원전통시장 등이 연이어 배치되었고, 해마다 급증하는 '방치 자전거' 학생에게 제공, 명칭 바뀐 환경미화원, '환경공무원'으로 불러주세요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시의성을 살린 계기성 기획이 의미를 깊게 했는데, 바다의 날을 계기로 해안 쓰레기 주범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등 환경이슈를 다룬 점과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을 앞두고 방송된 호국·보훈 정신 알리는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등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 【구성 및 내용】

한 주일동안 방송된 주요 아이템 중 메시지 전달력이 높은 리포트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시청하지 못한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환경 지키는 '플라스틱 안 쓰기' 참여 확산 리포트는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쓰레기가 섬을 이루고 국내 해안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기 위해 배달음식을 시키거나 포장할 경우 개인 용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비닐봉지 NO' 친환경 선언 망원전통시장 리포트는 망원시장 상인들이 고객에게 용기, 에코백 사용을 권유하며 비닐봉지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비닐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시장 자체적으로 이런 캠페인에 참여했다.

해마다 급증하는 '방치 자전거' 학생에게 제공 리포트는 대전의 한 자전거 보관소에는 많은 수의 자전거들이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세종지역은 방치된 자전거를 깨끗하게 수리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호국·보훈 정신 알리는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리포트는 서울 강남에서 성남을 지나 수원 광교까지 운행하는 신분당선 열차는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리는 디자인과 글자로 꾸며졌다. 달리는 역사 교육장으로서 독립과 보훈을 테마로 꾸며졌는데 독립운동가 100인의 업적을 웹툰으로 재탄생시켰다.

명칭 바뀐 환경미화원, '환경공무원'으로 불러주세요 리포트는 환경미화원의 자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양천구는 6월 말까지 환경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필리핀 학생, "드라마 보며 한글 배워요" 리포트는 한류와 한국어 열풍 현상과 함께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재 부족과 한국어 교사 부재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해결점을 제시한 점이 탁월했다. '자활 근로 카페 사업장, 전국 첫 공동브랜드'와 강원도 배달앱 '일단 시켜'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리포트는 자활의 꿈과 지역상권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6. 4.	시청률	0.000

### 【총 평】

‘경제&이슈’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대미 투자 확대, 글로벌 지위 강화 전략은?”을 다루었고, ‘알뜰신잡’은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법’을 소개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주요 주력사업들이 한미 투자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에 어떤 기대효과를 낳을지 살펴봄으로써, 한미정상회담이 글로벌 지위 강화 전략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반도체와 전기차 합작 사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되짚어 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알뜰신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청소년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 사이버 폭력 유형부터 예방법까지 시의 적절하게 구성했다.

### 【구성 및 내용】

세계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했는데 변이 바이러스 속출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브라질과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불안감도 소개했다. 특히 베트남의 감염 실태를 전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과 외국인 입국이 중단된 베트남 현지의 사정이 우리나라 경제계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살펴보았다.

‘경제&이슈’는 “국내외 코로나19 현황과 백신 접종 상황” 그리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대미 투자 확대, 글로벌 지위 강화 전략은?”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국 현지시각 5월 22일 오후 한미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미 양국 간 투자 약속 등에 대해 알려주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 중 반도체 배터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국내 4대 대기업인 삼성과 LG 그리고 SK와 현대와 함께 미국에 총 44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까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한국으로의 도약 소식을 전했다. 배터리 분야 투자 확대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전기차 수요량을 들며 향후 10년 이후의 산업 전망을 분석하고 테슬라와도 비교해가며 한국 기업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시해서 더욱 기대감을 높였다. 또, 한미 바이오 의약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합의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하여 생산기술과 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알뜰신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늘어난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법에 관해 다루었는데 사이버 폭력의 유형부터 피해 의심 단서와 대처방법 등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행태에 대해 사이버 폭력의 유형별 소개와 사이버 상의 모욕, 사진 합성 유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사이트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6. 5.	시청률	0.070

### 【총 평】

‘1700억 신화, 회장님과 행복한 돼지’편은 새로운 동물복지 축산사업 등으로 축산성공 신화를 이룩한 70대 축산 외길 인생 48년차 주인공의 의지와 시련 극복, 성공 비결, 끊임 없는 새로운 시도, 인생철학 등을 두루 소개해 귀농인의 롤모델을 제시했다.

‘동물복지’ 등 새로운 축산경영 방식, 고품질과 원가절감 경영, 축산과 사료생산, 냉장육 수출 등의 성공 비결 등의 기술을 전수했다. 가족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연과 경영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사회봉사와 나눔의 삶으로 여생을 보내겠다는 인생철학은 깊은 감동과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 【구성 및 내용】

‘1,700억 신화, 회장님과 행복한 돼지’편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축산업의 길을 48년째 걷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서부영화 한편으로 인해 축산업의 길을 걷게 된 주인공의 농장부터 사료공장을 비롯하여 농장의 동물복지 사육 등에 소개했다. 돼지 10마리를 가진 농장으로 시작해 현재는 육가공, 유통까지 아우르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5년 개인농장으로는 국내 두 번째로 동물복지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인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사육두수를 줄여야 해 사명감이 없으면 힘든 현실이다. 축산업으로 성공한 한 사업가의 삶과 철학을 접할 수 있었던 점도 소득이었으나 그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들려준 인생관이 더 큰 울림을 안겨준 스토리였다. 성공이라는 결과치만을 강조하지 않고,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업을 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주었다. 주인공이 삶을 대하는 자세에 방점을 찍고 구성한 것이 더 효과적이었고 느낌을 키울 수 있었다. 특히, 주인공의 표정과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돼지를 기르는 일 그리고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역경까지 디테일하게 그려내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아프리카 열병과 구제역 등 수차례 힘든 일을 겪은 다른 양돈농가에게 격려와 자극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던 점도 긍정적이었고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접할 수 있었던 점도 소득이었다.

충북 음성에 소재한 사료공장은 주인공이 2004년에 설립하고 전문경영인에게 맡겼다가 2010년부터 직접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이다. 대리점, 영업 등의 비용을 줄이고 그만큼 사료의 가격을 낮췄지만 품질은 최대한 신경을 쓰다 보니 매출은 올라갔다.

동물과 인간이 행복한 ‘동물복지’ 숲속 가축농장의 모습, 상수리 심은 방목장, 직원들과의 회식, 가족과 단란한 아침식사, 부부의 오붓한 등산과 정겨운 대화 장면 등이 메시지 전달력과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이 밖에 함께 성공을 일군 직원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성과에 대한 공유 등 다른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극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1. 6. 5.	시청률	0.220

### 【총 평】

경기도 이천 도자기의 위엄과 대한민국 명장 제349호 김세용 도자기 명장이 전하는 도자기 풍경소리 '가마와 물레가 만드는 도자 양상블'을 들려주었다. 이천 도자기 예술마을에서 여러 명장의 도자기 빚는 장면을 차례로 화면에 담으며, 도자기 빚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명장의 손에서 탄생된 이천 도자기는 흙이 내뿜는 예술의 극치이자 불이 빚어낸 인고의 선물임을 영상과 소리에 잘 담아냈다. 또, 도자기의 영롱한 자태가 연주 소리에 잘 섞여 느낌의 미학이라 불리는 도자기와 인생이 제대로 묻어났다.

김세용 명장의 제토과정과 물레 성형으로 도자기를 빚어 이중투각기법으로 무늬를 새겨 넣는 과정과 광경태 작가가 물레를 이용해 흙을 쌓아 올려 만드는 옹기를 제작하는 과정 등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편에서 도자기가 만들어 지는 신기한 과정을 볼 수 있었고, 옹기와 도자기의 제작 과정이 전혀 다르다 것과 도자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 물레성형은 중심의 미학, 조각은 느낌의 미학이다. 물레 성형에서 중심을 바로잡고 늘이기와 줄이기를 반복해 아름다운 도자기의 근본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조각은 다양한 무늬의 섬세한 기법으로 도자기의 화려한 옷을 입히는 과정이다.

이세용 명장의 이중투각기법 도자기 제작 과정을 소개했는데, 가장 첫 작업인 흙 다지기 작업부터 물레로 성형을 하고 이중투각기법으로 무늬를 새겨 넣는 모습 등을 소개했다. 섬세한 이중투각기법 작업은 보는 사람까지 숨죽이게 만들어 집중력이 최고로조 올라갔다. 여기에 느낌의 미학과 아내의 내조를 언급해 작업의 가치를 높인 점도 인상적이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 인내를 필요로 하는 섬세한 작업으로 김세용 명장의 '흙에서 빛으로' 라는 시는 도자기를 만드는 명장의 소명의식을 드러내주는 담백하고 소박한 시로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광경태 작가의 옹기 작업은 도자기와 달리 흙을 쌓아올려 제작하는 작업이 신기했고 표면을 가스토치로 말리는 작업도 생소해서 눈길을 끌었다. 옹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수천번의 손길로 두드리고 쌓아올려, 단단하게 만져주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옹기가 만들어짐을 보여주었다.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과 옹기를 만드는 방법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직접 보여주어 어떻게 도자기와 옹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이항구 명장은 물레 성형 후 이를 굽갸기 하는 정형 작업이 아주 강조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화면과 소리의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져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선사했다.

경기 이천 도자기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도자기와 옹기에 대해 만들어지는 제작과정과 작가들의 수많은 손길과 정성, 인내심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6. 5.	시청률	0.003

### 【총 평】

‘친북’은 한미정상회담 9일 만에 침묵 깬 북한의 메시지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해석과 의견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고, ‘ISSUE텔링’은 북한의 월드컵 불참으로 빨간불 켜진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 방법을 전달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북한의 첫 반응이라 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과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불참을 선언한 북한의 속내와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 북한 주민들의 축구사랑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 메시지에 깃든 숨은 의도와 개인 논평 입장차 혼란, 비공식 대변인과 공식 대변인 차이 등을 제기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시청 집중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 【구성 및 내용】

‘친북’은 한미정상회담 열흘 만에 침묵 깬 북한의 메시지와 앞으로의 행보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까지 두루 살펴보았다. ‘이슈텔링’은 북한의 월드컵 불참으로 빨간불이 켜진 남북 스포츠 교류 현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봤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해외 친북 인사의 논평으로 현재 북한의 입장을 전망해 보았다. 실제로 북한 정부가 내놓은 공개적인 입장이 아니었지만 최초의 북한측 반응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사일 제조에 있어 탄두거리와 미사일 중량에 있어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비난을 하고 나선 이유를 설명하였다. 북한의 반응 이후에도 북미간의 소통의 길이 열려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소통의 길은 열려 있고 북한도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마무리 했다.

‘이슈텔링’에서는 임형주 진행자의 멋진 노래를 들려주며 시작했다.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목소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일본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단 행사에서 선보인 노래라고 설명을 덧붙여 더욱 뜻깊게 들렸다. 남북간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북간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였으나 북한의 모든 불참으로 그 이유와 남북한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북한의 갑작스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불참 선언의 속내를 다루고 조 편성 과정을 살피고 과거 북한 축구팀과 우리 축구팀의 경기 영상을 함께 보기도 하고 북한의 축구 사랑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관련 내용은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지만 사실 북한측이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어떤 부분을 다루어야 할지 제작진의 고민이 었보였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주제를 잘 포착해서 다루었고 소재는 부족했지만 각 패널들이 내용을 알차게 준비했고 마지막에 북한측에 응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1. 6. 6.	시청률	0.002

## 【총 평】

정책미담에서는 정책활용 사례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이 개선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각함’을 소개했으며, 정책미담 스토리컷은 엄마와 자녀를 위한 육아 꿀팁을 소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을 위해 개선시킨 정책 사례 중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관련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달라진 국가자격시험 응시 제도, 운전학원 수강료 개선 등을 알려주었다. ‘정책 미담 스토리 컷’은 부산 시청에서 운영하는 ‘부산 아이 다 가치 키움’ 서비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진 육아정책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 【구성 및 내용】

정부 부처별 정책을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개정된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와 자동차학원비 정책 등을 소개했다. 특히,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경로가 인상적이었다.

국가자격시험중 22개의 자격시험은 1,2 차로 나뉘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1차 시험 불합격 및 시험당일 가족의 사망 및 개인적 신상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자격시험 응시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이 개선되었다.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국가시험중 화장실 이용 방안에 대한 민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었고 실제 같은 불만을 느끼는 시청자들도 많을 것 같아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면허 시험 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은 검정료 환불 시스템이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2021년 12월부터 과도한 수강료 인상에 대한 조정과 검정료 환불 규정까지 마련되어 시행한다.

엄마와 자녀를 위한 육아 꿀팁으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및 육아도서 대여의 찾아가는 서비스 부분은 육아를 해본 엄마라면 느끼는 공통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 실행해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장난감과 육아도서를 교체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부분을 해소해 준 정책 미담사례였다. 정부정책 중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육아정책임을 느끼게 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정책 지원이었다. 부산시의 장난감 대여 및 육아도서 대여 서비스 또한 지자체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실행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키워드&트렌드는 프랑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각 나라별 육아 정책을 소개해 우리나라 자녀교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6. 6.	시청률	0.002

### 【총 평】

‘제조에 혁신을 더한다 - 스마트팩토리’편은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고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집합체인 스마트팩토리의 활용 사례와 이점, 기대효과, 추진 과제는 물론 이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정책 제언까지 폭 넓게 살펴 보았다. 특히, 제조업의 생존의 열쇠인 스마트팩토링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강조해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을 이끌었다.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김치공장의 생산성 증가와 불량률 감소 효과와 스마트팩토리 운영 업체의 생산성 제고 등 고품질 구현 사례를 통해 스마트팩토링이 무엇이고 제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돼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본 구성이 소구력과 설득력을 높였다. 또, 스마트팩토링 확산과정에서의 과제와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 우려되는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았다.

### 【구성 및 내용】

‘스마트팩토리’가 가져올 변화를 생산자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설명해 관심을 키울 수 있었고, 그 개념에서 출발해 도입 기업 그리고 솔루션 공급업체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 내용을 연결해서 왜 ‘스마트팩토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알몸 절임배추’사례를 화두로 던지고 충남 서산의 ‘김치공장’ 취재로 시청자의 관심을 잡아당길 수 있는 연결이었다. 김치를 하는 데 있어 가장 고된 작업인 양념을 버무리는 공정에 도입된 인공지능센서를 소개했는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맛을 달리하는 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재미있었다. 익산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팩토리’는 40년의 관행을 뒤로 하고 탈바꿈해 의미가 있었고, 증강현실을 통한 보수관리시스템은 ‘스마트 팩토리’가 왜 4차산업 혁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기존의 자동화 공정과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들어 설명했는데 쉽게 이해가 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변화하는 고객과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핵심이 다 담겨 있었다.

스마트팩토리의 생산성 증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단순 일자리 영향에 맞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교육 필요 등 우려되는 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대응으로 고객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는 스마트팩토리 장점을 거론해 수용자 관심과 만족도를 높인 점도 긍정적이다. 뉴딜정책으로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소개했는데,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별, 지역별로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제언을 제시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6. 6.	시청률	0.004

### 【총 평】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보훈급여금 형평성 개선한다.’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다친 호국용사들의 처우를 생각해 보고 정부의 개선책을 짚어본 의미 깊은 기획이었다. 전상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보상금 등이 최소 생계비에 크게 미달하고, 월남전 참전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급별 차등 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꼼꼼하게 문제 제기를 한 구성이 탁월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평등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연장자(말이)에게만 지급되는 규정에 대한 개정이 계류 중인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촉구한 점도 돋보인다. 국가보훈처에서 문제된 사안에 대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현충일 특집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보훈급여 유형에 따른 실태와 개선사항 등을 짚어보았다.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을 맞이하여 적합한 소재를 채택해 구성했다. 선진국일수록 보훈은 중요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보훈급여금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의견이 있었다.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고 현충일에 맞춰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시의성과 관심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현행 국가유공자 보상 체계에 있어 형평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전상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등급별로 큰 차이가 있는 보훈보상금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고민해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보훈보상금은 총 11개 등급이 있는데 등급별 차등지급이 이뤄지는데, 문제는 등급간 보상금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전상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불합리한 금액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유공자 당사자의 입을 통해 전함으로써 더 현실감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보훈보상금의 경우도 등급별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사례를 경우의 수를 따져 정확하게 제시했고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좋았다. 그간 말이 많았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도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현재 정부에서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움직임을 아울러 취재한 점도 좋았다. 올 초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연구 중이며 해결책을 강구중이라며, 특히 주요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상이군경 전상수당은 기존 2만 3천원에서 올해 9만원으로 4배 이상 인상했다. 참전용사의 증언 중 “전신에 총상과 파편 조각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멘트가 숙연하게 느껴졌고, 당시 참상과 호국정신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서 현충일 당일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으로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